

# 취업자 6개월째 감소... "코로나19 재확산 반영 안 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취업자 수가 27만명 넘게 감소하며 6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취업자가 전년 대비 6개월 이상 줄어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8월 이후 11년 만이다.

다만 이번 조사는 지난달 9~15일에 이뤄지면서 코로나19 재확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광복절 집회를 시작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된 만큼 9월 취업자 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08만5000명으로 전년보다 27만4000명(-1.0%) 쪼그라들었다. 감소 폭은 지난 4월(-47만6000명) 이후 5월(-39만2000명), 6월(-35만2000명), 7월(-27만7000명)에 이어 4개월째 축소됐다.

취업자 수는 지난 3월(-19만5000명) 10년 2개월 만에 내림세로 전환됐다. 4월(-47만6000명)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여파가 있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후 21년 2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보이기도 했다.

산업별로 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과 모임이 줄어들면서 숙박 및 음식점업(-16만9000명, -7.2%) 감소세가 6개월째 지속됐다.

도매 및 소매업(-17만6000명, -4.9%), 교육 서비스업(-8만9000명, -4.7%) 등도 줄었다. 긴 장마와 집중 폭우의 영향으로 농림어업 취업자도 3000명(-0.2%) 줄어들며 감소세로 전환됐다.

제조업 취업자도 전년보다 5만명 감소했다. 2018년 4월부터 21개월 동안 하락세를 보이던 제조업 취업자는 지난 1월(8000명) 반등했으나 지난 3월(-2만3000명)부터 다시 내림세로 전환됐다. 감소 폭은 4월(-4만4000명), 5월(-5만7000명), 6월(-6만5000명)까지 확대되다가 7월(-5만3000명)부터 2개월 연속 축소됐다.

반면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6만

## 통계청, 8월 고용동향...취업자 감소 11년來 최장 숙박·음식점업 6개월째 ↓...농림어업 감소 전환 고용률 60.4%...동월 기준 2013년 이후 가장 낮아 청년층 체감실업률 24.9%...통계 작성 이래 최대

명·7.1%), 운수 및 창고업(5만6000명·4.0%),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5만5000명·5.1%) 등에서는 증가했다.

연령대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38만4000명 증가하며 유일하게 오름세를 보였다. 이 중 65세 이상 취업자가 25만1000명 늘었다. 반면 30대(-23만명), 40대(-18만2000명), 20대(-13만9000명), 50대(-7만4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이 중 40대 취업자는 2015년 11월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58개월째 추락 중이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도 17만2000명 감소하며 지난 2월부터 7개월 연속 쪼그라들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1.0%포인트(p) 내려갔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2013년(60.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전년보다 1.1%p 하락한 65.9%를 보였다. 같은 달과 비교하면 2013년 8월(64.8%) 이후 최저치다. 다만 2014년 8월(65.9%)에는 지난달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지난달 실업자는 86만4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00명(0.7%)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 역시 3.1%로 1년 전보다 0.1%p 상승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2018년(4.0%) 이후 2년 만에 최고치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은 13.3%로 전년 동월 대비 2.3%p

상승했다. 청년층 고용보조지표3도 3.1%p 상승한 24.9%를 기록했다. 지표 모두 2015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8월 기준 최고를 찍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2000명(2.0%)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중 차지하는 비율은 1년 전보다 1.6%p 상승한 53.8%로 조사됐다. 하지만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는 각각 31만8000명(-6.5%), 7만8000명(-5.5%) 감소하며 내림세가 지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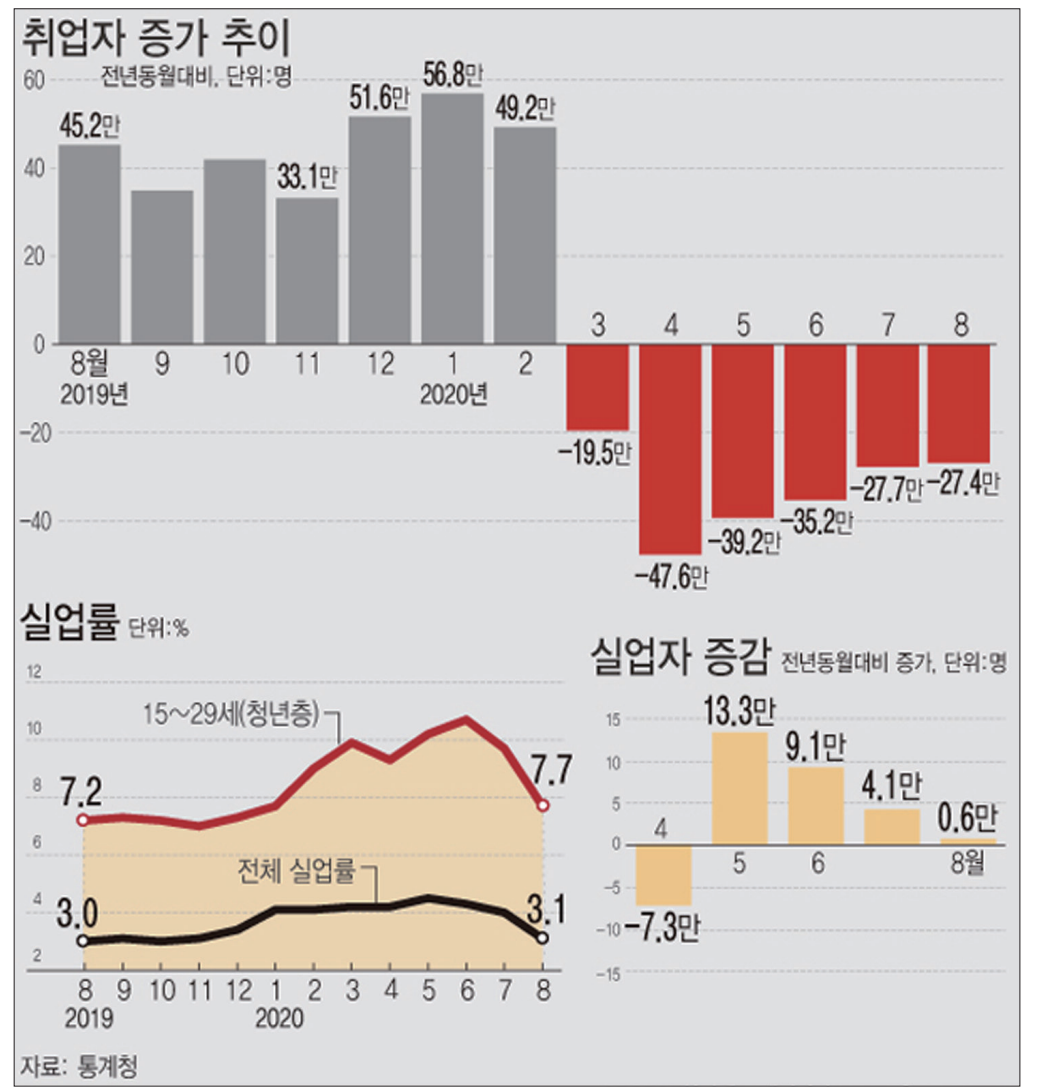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6만6000명(1.6%) 증가했으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7만2000명(-11.2%)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5만4000명(-4.8%) 쪼그라들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884만3000명으로 314만5000명(18.8%) 증가했으나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39만6000명으로 356만2000명(-35.8%) 감소했다. 1~17시간 초단시간 취업자는 17만7000명(8.4%) 늘었지만, 18~35시간 취업자는 373만8000명(-47.6%)나 뚝 떨어졌다.

일시 휴직자는 84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14만3000명(20.3%)이나 늘었다.

이는 8월 기준으로 2014년(87만8000명) 이후 최고 많은 수준이다. 일시 휴직자는 무급 휴직이더라도 복귀가 확실하고 무급기간이 6개월이 넘지 않을 경우 취업자로 집계된다.

복귀가 불분명하고 무급기간이 6개월을 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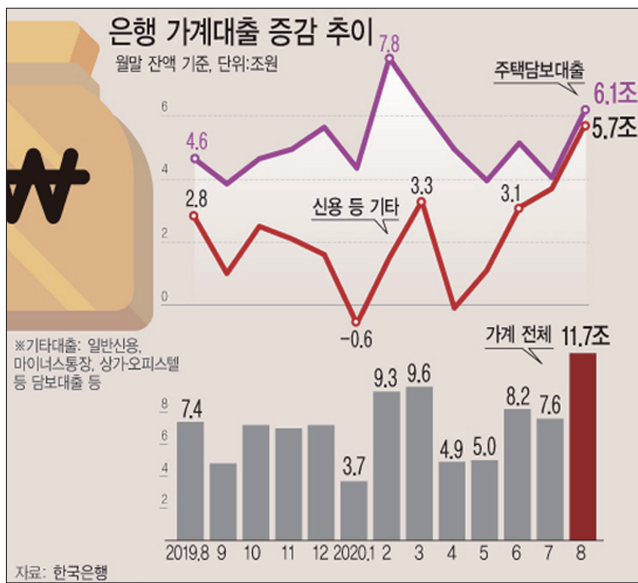


으면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지만, 복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일시 휴직자로 잡힌다는 것이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68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53만4000명(3.3%) 증가했다.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46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9만명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래 동월 기준 최대치다. 구직단념자는 68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13만9000명 늘었다. 구직단념자 2014년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으로 가장 많다. 증가 폭도 2015년 2월(18만9000명) 이래 가장 많이 증가했다.

## 8월 가계대출 역대 최대 폭증...집·주식 빚투에 전세 '영끌'

은행 가계대출 948.2조, 한달새 11.7조 ↑



8월 은행 가계대출이 11조7000억원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의 폭증세를 나타냈다. 부동산·주식을 사기 위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돈 마련)', '빚투(빚내서 투자)' 광풍에 전셋값 상승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수요까지 더해져 가계대출 증가폭이 견잡을

수 없이 확대된 것이다. 한국은행의 9일 발표한 '2020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48조2000억원으로 한 달 새 11조7000억원 급증했다. 한은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04년 이후 사상 최대 증가 규모다. 월중 증가액이 10조원을 뛰어넘은 것도 역대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가 무색할 만큼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신용대출까지 고공행진한 영향이다.

특히 은행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등 기타대출은 251조3000억원으로 전월대비 5조7000억원 늘어 2004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강력한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부동산 투자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간 '풍선효

과가 나타난데다, 빚 내 주식을 사려는 행렬이 끊임없이 이어진 영향이다. 윤옥자 한은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과장은 "주택매매와 전세, 수도권 분양 입주 자금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어진 부분이 있고, 주식 투자와 공모주 청약 관련 증거금 납입금 수요가 몰리면 서 기타대출이 큰 폭 늘었다"며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효과가 소멸되면서 생활자금 수요가 확대된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은 전월대비 6조1000억원 증가해 한 달 전(4조원)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주택 매매거래가 지속되면서 관련 자금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전셋값 상승에 전세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까지 가세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주택담보대출 중 전세자금대출 증가액은 3조4000억원으로 한 달 전(2조7000억원)보다 대폭 뛰었다.

정부의 규제로 전세매물 잠금 현상이 심화되면서 전셋값은 지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09% 올라 지난해 7월 첫째 주 이후 6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 코웨이, 장기렌탈고객 재렌탈 30% 할인 행사

이달말까지 5년이상 장기고객위해



코웨이는 이달 말까지 얼음정수기 5년 이상 장기 고객을 위해 신규 얼음정수기 렌탈료를 할인해주는 고객 감사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기존 장기 가입 고객을 위한 재렌탈 할인 요금제에 추가적으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재렌탈 요금제만 5년 이상 제품 사용 후 신제품 렌탈 시 일반 렌탈료보다 약 10~15% 할인된 가격을 적용해주는 코웨이의 장기 고객 우대 혜택으로, 이번 프로모션과 중복 적용된다. 이번 행사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C(H)PI-280, CHPI-08, C(H)PI-520/521, CHPI-610/611을 5년 이상 사용 중인 고객 및 멤버십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고객이 9월 말까지 신규 얼음정수기를 재렌탈 구매하고 기존 제품을 반납하면 약정기간(36개월) 동안 매월 렌탈료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프로모션 적용 신제품은 현재 판매 중인 얼

음정수기 전체 15종이다. 얼음과 냉수를 각각 생성하는 듀얼 냉각 시스템을 탑재해 풍부한 얼음을 제공하는 'AIS 정수기 3.0', 취향에 따라 원하는 농도의 맞춤 탄산수를 추출하는 'AIS 정수기 스프라클링' 등이 해당된다. 황순목 코웨이 워터케어팀장은 "장기간 변함없이 코웨이 얼음정수기를 아껴주시는 고객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프로모션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 김용범 "디지털뉴딜에 58조 투자...주력산업 디지털전환 촉진"

디지털뉴딜 분과 제1차 회의... "국토·정부 디지털화도 가속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9일 "2025년까지 디지털 뉴딜에 총 58조원(국비 45조원)을 투자해 우리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확고히 전환시켜 나가자 한다"며 "데이터 탠, 데이터 고속도로(5G)라는 기초 인프라를 튼튼히 하고 신산업 육성과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 뉴딜 분과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한 뒤 "전 산업의 5G·인공지능(AI)의 융합·확산뿐만 아니라 국토, 정부의 디지털화도 가속화해 우리나라가 디지털 경제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대에 확실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위기는 이런 AI를 비롯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가

속화하고 있다"며 "온라인 쇼핑·사이버 교육 등 비대면 수요의 급증으로 애플·아마존·구글·중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전통적인 항공·석유·철강 등 산업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차관은 "우리나라에 매우 중요한 파트너인 미중 간 갈등 상황 속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이고도 치밀한 정책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우리의 강점인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하드웨어 분야의 기술력은 계속 강화해 초격차를 유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뒤쳐진 데이터, AI 분야는 단기간 집중 투자를 통해 압축적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매질 전 삼성전자가 미국 최대 이동통신사인 버라이즌과 8조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국가 간의 기술패권경쟁이 더욱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기업과 산업이 나가야 할 바를 잘 보여준 쾌거"라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 자문단으로 AI, 빅데이터, 5G, 비대면, 클라우드 등 분야에 자문위원 16명을 위촉했다. 자문단에는 기업인 등 관련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